

“‘복면 벗어주세요’...김성주 맛깔 진행 최고”

쉬운 포맷·추리하는 재미 증독성
연예인 판정단의 입담 인기 요인
출연자들 성실한 리액션도 한 몫



김구라 이윤석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MBC ‘복면가왕’의 진행자 김성주가 이렇게 외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15년 4월5일 첫 방송한 프로그램은 5일에 이어 12일에도 5주년 특집을 진행한다. 그동안 수많은 음악예능프로그램이 쏟아지는 사이에서도 최근까지 10%대(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5년 동안 복면 가수들의 정체를 추리해온 ‘연예인 판정단’의 ‘투 톱’ 김구라와 이윤석이 그 비결을 밝혔다.

●쉬운 포맷·김성주의 진행
이들은 “쉽고 단순한 프로그램의 형

식”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방청객과 연예인 판정단이 복면을 쓴 유명 인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정체를 맞히는 포맷은 미국 포크 채널이 리메이크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이윤석은 “알고 보니 너였네!”가 절로 나오는 추리의 요소는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마치 퀴즈를 맞히는 기쁨과 쾌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무대의 긴장감을 이끄는 김성주의 진행 실력도 힘을 보탠다. 김구라는 “출연

자들의 음악 경연 외에도 진행자 김성주의 열정과 연예인 판정단의 추리력이 적절히 어우러져 지금까지 인기를 유지한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이윤석도 “김성주가 복면을 벗어 달라고 외치는 한마디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출연자들의 반전 매력

무엇보다 매주 다양한 노래를 내놓는 복면 가수들이 5년 동안 바뀌지 않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김구라와 이윤석은 복면 가수들의 정체가 반전을 안기는 순간이 ‘복면가왕’을 매주 새롭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김구라는 “내 아들이 래퍼 그리가 복면 가수로 나왔는데도 몰라봤다”면서 “나름 ‘족’이 있다고 자부한 나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반전”이라고 돌아왔다.

복면 가수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연예인 판정단의 입담도 인기 요인으

로 꼽힌다. 가수 김현철, 윤상, 유영석, 개그우먼 신봉선 등이 전문 지식과 감을 동원해 매주 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경연에 나오는 음악만큼 아름답고 정확한 판정단의 코멘트와 가끔의 헛발질”이 재미를 이끈다고 말했다. 이윤석은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출연자들의 노래에 기립박수를 보낸 내 성실한 리액션(반응)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며 웃었다.

록음악 마니아로 잘 알려진 그는 “음악대장”이란 이름으로 가왕에 오른 밴드 국카스텐 멤버 하현우의 ‘라젠카 세이브 어스’와 ‘낙랑18세’로 출연한 가수 소찬휘의 ‘허어아이 스탠드 포 유’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다”며 다양한 록 장르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와 반가웠다고 말했다. 또 “가왕이 빛날 땐 항상 원곡을 부른 ‘가왕’ 신해철이 있었다”며 그룹 넥스트의 고 신해철을 추억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생충 흑백판’ 특별상영 형식으로 29일 개봉

5월초엔 VOD 통해 해외에도 공개
한국영화 라인업 구축 청신호 기대



기생충 흑백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흑백판이 개봉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극장가에 관객이 찾아오는 청신호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전히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나온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8일 ‘기생충’ 흑백판을 29일 특별상영 형식으로 개봉한다고 밝혔다. 당초 2월26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소수 상영관을 통해 선보인다. 같은 시기 다른 상영작들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기생충’ 흑백판은 5월 초 해외 VOD를 통해서도 각국에 공개된다”며 “그전에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기생충’ 흑백판은 봉준호 감독이 흥경표 촬영감독과 직접 작업한 특별 버전이다. 평소 흑백영화에 애정이 각별한 봉 감독은 앞서 ‘마더’도 흑백판으로 공개한 바 있다. ‘기생충’을 이미 관람한 관객 사이에서도 형성된 궁금증이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극장가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른 인지도와 후광효과 역시 유효하다.

영화계는 ‘기생충’ 흑백판을 필두로 과연 5~6월 한국영화 개봉 라인업이 서서히 구축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기생충’이 영화 마니아 관객층은 흡수하겠지만, 그렇다고 상반기 한국영화 개봉 여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정부 방침과 감염병 확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향후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세계를 유혹하는 (여자)아이들 35개국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

뮤비 조회수 2000만건 넘어
음악프로그램 1위 노려볼만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히트 행진하고 있다. 데뷔 이후 꾸준히 두드러지는 성과를 낸 덕분에 ‘단기 목표’인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 1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여자)아이들이 6일 발표한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 트러스트’가 세계 35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8일 기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자)아이들이 데뷔 이후 최다 지역에서 기록한 성과다. 앨범 판매량도 자체 최고 기록인 10만장을 돌파했다. 또 타이틀곡 ‘오 마이 갓’도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1위부터 4위 등 상위권에 올라 ‘장르가 (여자)아이들’이라는 수식어를 또 한번 입증했다. 뮤직비디오도 공개 5시간 만에 한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등

영상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은 후 8일 기준 조회수 20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 앨범은 “나는 나를 믿는다”는 뜻으로 만든 앨범으로, 리더 소연이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 타이틀곡 영어 버전은 특히 해외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자)아이들은 당초 이달부터 세계 32개국에서 첫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하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영어 버전으로 공개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음악프로그램 1위도 노려볼 만해졌다. 사실 (여자)아이들은 2018년 데뷔곡 ‘라타타’를 시작으로 ‘한’, ‘세노리따’, ‘리인’ 등으로 연이어 음원차트 정상에 차지했지만,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 1위는 한번도 차지하지 못했다. 앨범 판매량과 음원 등 성적이 나쁘지 않고 활발한 방송 출연으로 1위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데뷔 때부터 승승장구해온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또 한번 흥행 청신호를 쫓는다.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 1위 목표도 조만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



‘사냥의 시간’ 해외에선 공개 못한다?

상영금지 가져본 신청 받아들여져
넷플릭스 190여개국 동시 공개 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하다 극장 대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공개를 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에서 선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원은 8일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져본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공개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4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넷플릭스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법원 결정 직후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사이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됐고, 해외 공개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매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8일 오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리틀빅픽처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26일 개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개봉을 연기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고 극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3월23일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로 직행,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준비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영화계에서 찾은 또 다른 자구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를 맡은 콘텐츠판다는 ‘협의 없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져본 신청과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자사 세일즈를 통해 해외 30여개국에 판매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넷플릭스 사이 분쟁이 가열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해리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윤학·유형업소 종업원 확진 관련 역학조사 거짓 진술 시 징역·벌금

가수 윤학(37·정운학)과 접촉 여성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해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학은 3월24일 일본에서 귀국해 27일 최초 증세가 발현된 뒤 이달 1일 확진됐다. 역학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그와 3월26일 접촉한 여성은 ‘프리랜서’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윤학과 만난 뒤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해당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밝혀져 집단 감염 우려를 낳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김상혁, 결혼 1년만에 이혼 절차

그룹 클리비 출신 김상혁이 결혼 1년 만에 맞은 파경 소식을 전하며 울먹였다. 김상혁은 지난해 4월 쇼핀몰을 운영하는 송모씨와 결혼했지만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8일 SBS 러브FM ‘김상혁 단디의 오후라디오’에서 “남편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불찰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근태 후보, 일부 가수 순위 조작 주장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불뺀간 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 등 일부 가수들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8일 김 후보는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브가 중국 등에서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ID로 음원차트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다”면서 “국민의당 측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크레이티브 측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tvN 드라마 ‘반의반’ 12회로 조기 종영

정해인과 채수빈이 주연하는 tvN 월화드라마 ‘반의반’이 28일 조기 종영한다. ‘반의반’ 제작진은 8일 당초 16부작으로 기획한 드라마를 “12회로 압축해 스토리의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2%(닐슨코리아)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고 방송가에서는 보고 있다. ‘반의반’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와 클래식 녹음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그리는 로맨스 드라마다.